

##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오자와 마키코(小沢牧子) | 임상심리를 전공했고, 일본사회임상심리학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1월 명지대에서 있었던 특강을 정리한 것으로, 신라대 박동섭 교수가 통·번역에 도움을 주었다.

### 심리학에 판지 걸기

제가 심리학 연구와 실천에 의문을 갖고 이 학문을 새롭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 지 어느 새 삼십 년이 되어갑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심리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선의’의 학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이 학문을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 테스트와 카운슬링에 내포된 문제점에 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번 칠레에서 탄광 낙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극적으로 생존한 어느 광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심리학자와 얘기 나누고 싶지 않아요. 어떤 기분입니까, 라는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심리학이야말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선의를 제공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당사자들은 그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심리학의 열성적인 연구자였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몇 년간 국립정신보건연구소에서 심리 테스트와 카운슬링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연구한 분야는 지능검사나 성격검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로르샤하 테스트(Rorschach test)입니다. 당시에는 검사받는 이들의 불안하고 불쾌한 입장을 생각지 못하고, 검사를 실시하는 측의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연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 본위의 연구를 일본에서는 ‘문어통발 속의 연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회 상황과 자신의 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 눈 감은 채, 좁은 연구실과 책상 위에서 전문가 흥미 본위의 닫힌 연구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젊었을 적의 저는 확실히 ‘문어통발 속의 연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상담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을 만나고부터는 심리학이 정말로 아이들 편인가라는 의문이 내 안에서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제가 전공한 임상심리학 중에서도 지능검사와 카운슬링에 대해 거론하고, 그 중에서도 카운슬링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 아이들을 나누기 위한 지능검사

1960년대 후반부터 일본 내에는 심리학과 관계된 일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의 수요가 특히 증가한 곳은 공교육 상담기관이었고, 저는 곧 기관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상담실이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 당시 아이들이 해야 할 공부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없는 아이들을 보통 학급에서 선별하여 다른 학급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급속한 고도 경제성장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고, 그에 발맞추어 학교 공부의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교가 엘리트 양성기관이 되었던 것이죠.

1966년 시작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으로, 수학교육 중 함수학습이 중학교 1학년(12~13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7~8세)으로, 확률학습은 고등학교 1학년(15~16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11~12세)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한자공부도 사정은 같아서 초등 6년 과정 동안 외워야 할 한자 개수는 115자나 증가했습니다. 그때부터 학교 바깥에 학원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느라 노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빠른 공부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특수학급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는 1960년 25개 정도이던 교육상담기관이 1972년에는 그 수가 두 배로 늘어 50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껏 별 문제 없이 함께 지냈던 아이들을 따로 나누어 교육하는 분리교육 정책과 관련 있습니다. 말하자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교실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이때 심리상담사가 하는 일이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해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낮은 점수를 얻은 아이를 특수학급에 보내도록 부모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별을 순조롭게 완수하는 일이 맡겨진 것입니다. 심리학 분야의 직장이 증가한 것의 배경에는 이처럼 아이들 간의 공부경쟁이 격화되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교육정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인 동시에 같은 지역에 사는 여러 친구들과 매일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에 자신 있는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 암전한 아이나 침착성이 없는 아이, 잘 사는 아이나 가난한 아이, 운동을 잘하는 아이나 장애를 가진 아이, 이 다양한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교사의 배려 아래 날마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세계를 넓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사회를 알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몸에 익히며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나갑니다. 학교는 학습하는 장소인 동시에 생활하는 장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것과 만나면서 천천히 생활 체험을 쌓아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아가는 힘을 충분히 익힐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능력별로 아이들의 있을 곳을 나누는 것은 학습의 효율만을 중시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학습능력이라는 잣대로 편리하게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능검사에 의해 매겨진 숫자, 즉 지능지수를 객관적 수치라고 말하면서 아이를 나누는 근거로 손쉽게 이용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는 아이를 선별하려는 어른들의 방편이지 다양한 아이들의 공생과 공존을 돕는, 아이들을 위한 방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능검사가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자각하고 난 뒤부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지능검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지능검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복숭아는 어디가 닮았습니까?”라는 문제에 어떤 아이는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사과는 딱딱하지만 복숭아는 부드럽기 때문에 곧 뭉개져 버려요. 복숭아는 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점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긴 해도 양쪽 모두 둥근 모양인 건 닮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는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의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지능검사에서는 반밖에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깎아본 경험도 없고 실물도 잘 모르는 아이가 “양쪽 모두 과일입니다.” 하고 재빠르게 대답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능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은 생활 속의 확실한 지식이나 풍부한 지혜가 아니라 실물을 개념이나 기호로 옮겨놓는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능검사 연구자인 테일러(L.E. Taylor)가 ‘모든 지능검사는 기호를 조작하는 능력을 측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적 사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복숭아의 실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보다 그것들을 개념으로 옮겨서 조작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물과 천천히 만나서 실제의 세계를 몸으로 알게 되는, 우리가 사는 데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능검사는 잘라 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실제보다 기호를 증시하는 사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상에 의해 만들어진 테스트로 측정한 것이 바로 지능이며, 그것은 많은 아이들에게 생활의 풍부함을 억압하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실물에 열중하기보다는 추상적인 기호를 다루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기호는 사고의 효율을 높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아이는 지능검사나 학교 공부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구체적인 실물을 다루고 실물에 열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투구풍뎅이나 잠자리에 열중해 그것들을 뒤쫓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워서이지 곤충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기호에 관심이 있어서는 아닐 것입니다.

실물과 기호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그 간극을 천천히 메워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간극을 메우는 데도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인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능검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분수 공부를 할 때에도 1/2, 1/4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고 깊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많은 생활 체험이 필요합니다. 과자 두 개를 세 명이 나누어 먹거나 유리구슬 놀이를 하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유리구슬 개수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개수의 반이라는 것을 알고 실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체험은 분수라고 하는 개념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흙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 있는 체험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호로서의 분수 개념이 주입되면 모래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라버리게 되고 결국은 싹이 트지 않겠지요.

물론 기호적인 사고가 효율을 낳고 높은 단계에 오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양한 체험 속에서 공통된 뭔가가 하나의 추상적 개념으로 추출되고, 그러한 개념을 인식할 때 우리는 공중을 나는 새처럼 새로운 차원에서 구체적 체험 하나하나를 살펴볼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지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지상의 풀과 곤충을 먹으려 끊임없이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듯이,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사물과 일 또는 현상과 부단히 관계를 맺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친절한 얼굴을 한 관리 수법, 카운슬링

임상심리학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기둥인 카운슬링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제가 대학생이었던 1960년 무렵 카운슬링의 이론과 기법이 일본에 막 들어왔는데, 당시 소개된 카운슬링은 칼 로저스(Carl Rogers)의 비지시적 상담(내담자 중심 요법)으로 심리임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학파의 카운슬링은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 내면서 아직까지 일본 내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카운슬링 방법은 상대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느낄까?’를 중시합니다. 오늘 강연 첫머리에서 말했듯이 지난 번 칠레의 낙반 사고로 구조된 광부가 “이제 더 이상 심리학자에게 어떤 기분이냐는 질문을 받는 건 싫다”고 한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학파의 카운슬링은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공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카운슬러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해서 내담자가 던진 말을 명확하게 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말을 돌려주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대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혼란 상태로부터 안정을 찾게 되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슬링 장면에서는 순식간에 내담자가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른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형태에 어딘가 의문스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직접 카운슬링을 받았던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카운슬링 공부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어느 여자아이의 치료를 담당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카운슬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었고, 그 아이의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슈퍼비전(supervision)이라 불리는, 상담자를 위한 상담을 한 것입니다.

상담하던 아이로 인해 힘들었던 저는 당시 지도를 받고 있던 심리학자에게 주 일 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심리학자(supervisor)는 앞에서 언급했던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요법을 사용해서 초심자 연구생인 저의 고민을 조용히 듣고, 저의 감정을 거울에 비추듯이 명확하게 하면서 제게 계속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순식간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내 한 시간 후에는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스스로 답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담자였던 상대는 제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제게 돌려주었을 뿐 단 한 마디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말하고, 상대방이 돌려주는 말에 의해서 자신을 새롭게 받아들였으며, 그 와중에 대답이 저의 내부에서 올라와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심광이 번쩍인 것처럼 대답이 제 안에서 솟아오른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 안에는 그 기억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렬한 인상이라는 것은 감격과 같은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데 뭔가 좀 이상해’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기법에 대한 위화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의 체험과 감상을 들은 지인이 “답을 금방 찾았으니, 그럼 된 거 아닌가요?”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간단히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생각으로부터 배운 것도 없고, 뭔가 비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카운슬러는 한 마디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 하나 알게 된 것도 없고, 앞으로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위화감은 카운슬러 개인의 역량 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카운슬링의 구조에 기인하는 문제라는 것을 초보 연구생이었던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저보다 위에 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내민 경우였습니다. 즉, 친근감 있게 잘 들어주는 상대방 앞에서 상대방이 제게 바랄 것 같은 대답을 어느새 스스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 것이죠. 대부분의 카운슬링 장면들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카운슬링의 구조에 몸을 딱 맞춘 모범적인 클라이언트를 연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느낀 위화감 중에는 친절하고 상냥해서 잘 보이지 않는 관리구조에 자기를 맞추어 재빠르게 ‘좋은 아이 클라이언트’를 연기한 나 자신에 대한 개운치 않은 뒷맛도 포함되어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카운슬러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담자는 한층 더 그 상담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대답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카운슬러는 자신의 말에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카운슬링은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대답을 찾아내도록 합시다. 단, 상담자가 원하는 바람직한 대답을!”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카운슬링이라는 권력 관계가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물론 대등

하지 않은 관계는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부모와 아이, 상사와 부하 같이 대등하지 않은 관계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죠. 그러나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그 관계 안에 풍파가 인다고 해도 말이죠.

그러나 밖으로는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는 권력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을 이끌어내서 온화하게 자기책임을 지게 하는 카운슬링은 내담자나 상담자 양측 모두 느끼기 어려운 교묘한 ‘지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기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기법은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키워드로 하는 신자유주의와 궁합이 잘 맞아서 온화한 걸모습을 한 효과적인 관리기법으로 학교나 가정, 기업 등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카운슬링 문화는 현대의 관리사회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카운슬링을 통한 아이 관리

아이에게 시행하는 카운슬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 년 전쯤 어떤 비디오테이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의 카운슬링 아이디어와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해당됨)이 만들어 일본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졸업식을 앞둔 어느 중학교의 이상한 소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졸업식 후에 두 명의 교사를 연못에 던질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고, 그 얘기가 교직원회의에서 다루어집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카운슬링 경험이 있는 교사가 주모자인 학생 두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비디오테이프는 이 두 명의 학생이 카운슬링을 받으면서 온화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연못에 던져버리려고 한 교사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무례한가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카운슬러 교사가 “너희들이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내게 자세히 들려주겠니?” “그래, 너희들 참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친절하고 부드럽게 얘기를 이끌어 가자 학생들의 분노가 점점 가라앉았고, 마지막에는 “선생님 한 분이라도 우리의 분한 기분을 알아주셨으니 됐습니다.” 하고 항의를 철회해서 그 사건이 없던 걸로 되고 맙니다.

이는 카운슬링을 학교로 확대할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디오이므로 실제로 학생들이 이처럼 이해심 깊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만, 일단 그것은 접어두겠습니다.

이 사례는 카운슬링의 방법과 역할을 알기 쉽게 잘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란, 상담실이라는 개별 공간 안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수습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본인을 주위의 관계로부터 떼어내서 그들(학생들)만을 변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교사나 교실 상황은 그대로 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난폭함에 분노를 느낀 학생들은 카운슬

링 교사가 친밀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기분이 풀리고 화를 수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난폭한 교사는 자신의 행동을 다시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면죄되고, 학교는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 특히 관리직에서 카운슬링이 환영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학생의 항의나 분노에 귀 기울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학교 측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학생의 문제로 쉽게 봉해 버리는 방법을 취한다면, 권력 편에서 있는 교사들은 점차 타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학생들과의 관계도 개선될 리 없습니다. 학생들을 어중간하게 달래는 것으로 그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카운슬링은 서로가 정직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만드는 관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카운슬링은 지능검사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능숙하게 조작하기 위한 어른의 방편이지, 아이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방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부모와 자식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카운슬링

학교만이 아닙니다. 카운슬링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비집고 들어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용하는 카운슬링 기법 중 하나는, 앞에서 말한 칼 로저스의 제자인 미국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Thomas Gordon)에 의해 창시된 ‘부모를 위한 트레이닝(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 없이 아이의 감정을 해독하면서 아이의 말을 돌려주다 보면 아이 스스로 부모가 바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대화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중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여자아이의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 어떤 점을 좋아했어?” 부모 트레이닝을 받은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아이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생각해보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아버지는 딸의 물음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의 배경에 있는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을 해독해서 그 감정으로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는 ‘감정의 명확화’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응 방식에 힘입어 딸의 관심은 남자아이의 사회와 아버지의 체험이라고 하는 외부세계로부터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이행합니다. “맞아. 난 남자아이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 카운슬러 역의 아버지와 딸의 대화는 계속되고, 그러던 중 딸은 자신의 겁쟁이 같은 태도를 반성하고 “역시 부딪혀보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자기반성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응답 효과에 만족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 프로그램에 의한) 능동적인 듣는 방법 덕분에 내 딸은 건설적인 자기변혁으로 연결되는 행동을 스스로 생각해 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아주 만족스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야! 아빠도 젊었을 때 여자한테 많이 차였어”와 같은 솔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없습니

다. 아이의 내면조작이나 교육적 자세가 부모와 자식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읽은 어느 대학생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낼 건데?’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너 나랑 데이트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맞지?’라고 대응했다면 무례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운슬링 기법은 그 신뢰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모 트레이닝이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도 “아빠는 나에게 건설적인 생각을 말하게 하고 싶은 거죠. 아닌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저는 농담조로 말하곤 합니다.

#### ‘마음의 케어’에 대한 의문

마지막으로 최근 십 년 동안 일본사회에 침투한 ‘마음의 케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본 학교에서는 아이의 자살이나 살인 같은 큰 사건이 일어나면 곧바로 학교에 스쿨 카운슬러가 파견되어 아이들에게 ‘마음의 케어’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이나 교사나 부모들의 동요를 막고 특히 아이들에게 큰 쇼크가 남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구의 죽음과 같은 충격에 대한 대처를 ‘마음 전문가’의 손에 맡겨두고 부모나 교사가 몸을 뒤로 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는 보통 가까이 있는 어른이 버팀목이 되어서 마음껏 슬퍼하도록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이들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진정으로 “최근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카운슬러가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기 때문에 안심이다.” 하고 생각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평온한 일상 속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고 해도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보다 부모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통은 서로가 바빠 얼굴 볼 시간조차 없다 해도 중대한 일을 겪게 되면 부모와 자식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탄하고 얘기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할 때에야 아이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아이와 같이 생활하는 교사가 나설 차례이기도 합니다. 교사가 아이를 염려해 가정방문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낯선 ‘마음의 전문가’가 ‘트라우마 체크 리스트’를 한 손에 들고 지도자와 같은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전문가가 따라 붙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시되기 때문에 ‘마음의 케어’라는 이름 아래 부모 자식의 생활이 전문가에게 맡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염려하고,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아주 소박한 관계일지도 모



룹니다.

### 심리학으로부터의 해방

심리학은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심리 테스트라는 도구로 상대를 단정해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심리학은 아이 편이 아닐까 생각한 나의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심리학으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아이 편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작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직하고 솔직한 인간관계야말로 어른과 아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안심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카운슬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깊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라고 말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깊지만 친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깊지는 않아도 친한 관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상담’이라고 하는 상품을 ‘서로 함께 생각하는 일상의 일’로 복원하고 되돌리는 길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차츰 ‘깊고 친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